

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(회장 임순분, 이하 전여농)이 올 수매가 16%인상, 쌀1천2백만 섬 전량수매를 이루는 방안으로 '쌀 전량수매를 위한 학교의무 급식 완전실현 서명운동'에 들어갔다.

전여농은 지난 9일 오전9시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<쌀전량수매를 위한 학교급식 완전실현 서명운동 시작에 관한 기자회견>을 갖고 오는 11월12일 쌀 전량수매, 학교급식 실현 전국여성농민대회까지 서명운동, 공개질의서발송, 간담회, 공청회 등 1차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.

쌀생산 급증에 따라 매년 쌓여온 재고미를 과자나 술 등 제조에 쓰이는 공업용으로 소비해왔고 일부 급식실시 학교에 1가마당 4만원에 급식용 쌀로 재고미를 처리해 왔으나 남은 재고미의 관리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.

우선 농어촌지역에서부터 학교급식이 실시될 경우 전체 농업노동의 53%를 차지하는 여성농민의 생산노동이 보장돼 도시락을 싸는 수고를 덜어주게 된다.

전여농은 쌀 전량수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여성농민들과 힘을 합쳐

● 전국 여성농민회

쌀 전량수매 촉구

초중고 급식으로 3백만섬 추가수매 가능

전여농 임순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"생산비에 못 미치는 수매가 그나마 안되면 6천9백억원씩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다"며 정부 비상식량 9백만섬에 급식용 쌀 3백만섬을 포함한 1천2백만섬 전량을 수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.

현재 수입개방과 저곡가정책 등으로 몰락해가는 농촌에서 농가소득에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43.8%나 된다.

그러나 수매양곡 9백만섬에 초·중·고까지 학교급식을 전면실시할 경우 3백만섬의 쌀이 더 수매될 수 있다는 것이며 학교급식에 정부재고미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데서 나온 제안이다.

장부재고미 무상제공은 현재 정부재고미 한가마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년에 무려 4만3천원에 이르러 8백만섬~1천2백만섬에 이르는 양곡관리비의 엄청난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. 정부는 86년 이래



▲임순분 회장

실천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"쌀문제와 급식문제가 비단 여성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여성의 이해를 모으고, 농민관련단체,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겠다"는 입장이다.

한편 전여농은 올 수매가 16% 인상 요구 역시 "농민들이 저곡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쌀농사를 점차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식용 쌀이 모자라는 사태가 곧 닥칠 수 있다"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인식, 농민들의 최소한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재차 촉구했다.